

■ 광주 '문화로 모시기 홍보 컨설턴트' 5인

# “기업 문화 마케팅 혁신 첨병 될 터”

문화관광부가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로 모시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문화로 모시기 홍보 컨설턴트' 100명을 위촉했다.

'문화로 모시기' 사업은 기업들의 문화 마인드가 척박한 지역 여건에서, 단순한 세제 지원 혜택을 넘어 기업의 문화 마케팅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공연·전시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일 광주 지역 컨설턴트로 위촉된 강영태(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재섭(도드리 상임지휘자), 이현도(대방포스텍 대표이사), 황인근((주)공연 마루 대표이사)씨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송진희(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씨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김영주=요즘 문화 예술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불모지나 다름 없다. 18일 문화부 위촉식에 다녀왔는데 '문화로 모시기'는 기업체들이 하는 접대비를 '문화'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문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현도=지역 미술가들을 조명 디자인에 결합시키는 예술인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가 접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악 단체나 오페라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보통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때가 많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업들에게는 문화로 모시기가 세제 지원의 혜택도 있지만,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황인근=공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광주의 경우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좋은 공연이 많이 오지 못하는 이유다. 공연을 유치할 때 광주 기업의 반응도는 전무한 상태다. 처음에는 기업들의 배려로 공연장에 한번 오게 되면 맛을 알게 되고, 또 자발적인 관객이 될 수도 있다. 그 만큼 층이 넓어진다는 말이다. 얼마나 실 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제도가 지방까지 확대되면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문화관광부가 진행하는 '문화로 모시기 홍보 컨설턴트'로 위촉된 황인근·김영주·김재섭·강영태·이현도씨(사진 왼쪽부터)가 21일 첫 만남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기업들 접대비 '문화'로 유도하는 게 임무

## 광주는 '불모지'... “좋은 공연·전시 많아야”

▲강영태=현재 전국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대기업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고, 솔직히 문화 마인드가 없는 게 사실이다. 예방이라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지난 연말 골프 대신 회장단과 조수미 공연을 관람했는데 다들 반응이 좋았다.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 찾게 될 거라 생각한다. 기업체들이 관심을 갖도록 언론에서도 다양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현도=이업종 교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몇 개의 회사가 어우러져 함께 공연을 진행하거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김재섭=일단 공연계에 몰담고 있는 입장

에서 이번 제도의 시행이 반갑다. 10년간 국악 실내악단을 이끌고 있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 뿐 아니라 숨어 있는 민간 단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 지역 단체들의 표를 가끔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티켓만 구입하고 공연장에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연장까지 꼭 와주시면 좋겠다.

▲김영주=기획사나 공연 단체들도 스폰서나 티켓을 판매할 때 기업들에 문화로 모시기 등의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경로나 상공회의소 조찬 강연 등에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 기업인들이 문화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로 모시기'사업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기업체에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티켓을 구

### 기업에 접대비 명목 티켓 구입 때 세제 지원

입하거나 고객들에게 사은 목적으로 티켓을 제공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다양한 공연 티켓, 전시회·박물관 관람 티켓, 영화관람권, 스포츠 관람권 등을 포함한다.

문화계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문화 마인드 확산을 통해 공연단체와의 결연, 예술인 정기 공연 지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대하고 있다.

# 무등갤러리 본관 문 닫는다

## 무료대관 싸고 상업갤러리와 마찰...지역작가들 “공공갤러리 폐쇄되나” 반발

이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온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 본관(이하 본관·일명 무등예술관)이 9년만에 문을 닫는다. 본관의 무료 대관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인근 상업 갤러리들의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돼 왔던 공공 갤러리가 폐관함에 따라 지역 작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무등갤러리 본관과 분관을 관리해 온 예술관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육원 동구 부구청장)는 22일 “오는 5월말 본관을 폐관하고 분관 1곳만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예약된 전시회가 끝나면 6월부터 본격적인 매각절차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각에 따른 건물 공시지가는 2억3천만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본관은 매년 평균 250여일 가량 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2003년 본관(267㎡)을 개관하면서부터는 지역작가들에게 무료로 대관(하루 15만원)해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인근의 상업 갤러리로부터 반발을 샀다. 젊은 작가들이 무료로 대관



지역청년작가들의 문화사랑방으로 각광받은 무등갤러리 본관(일명 무등예술관)이 오는 6월 폐관된다. /최한기기자 choi@kwangju.co.kr

해주는 본관으로 몰리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협소한 전시장 공간도 폐관의 원인이 됐다. 전시장 면적이 1~2층 전시실을 포함해 155㎡에 불과해 대형 작품을 전시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예술관운영위원회는 이혜경 관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됨에 따라 이달 30일께 신입 무등갤러리 본관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 사양화가 신속정씨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하정웅씨 미술서적·자료 1천여점 기증

평생 수집한 미술품을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하정웅(68·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사진) 씨가 또다시 미술관련 서적과 자료 1천여점을 광주시립미술관에 내놓았다.

하 관장은 22일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해 그동안 자신이 모은 미술 서적과 전시회 도록 등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기증한 전시회 도록 가운데



시와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 관장은 오는 31일 부산시립

미술관에서 열리는 하정웅컬렉션 특별전인 '재일(在日)의 꽃'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하 관장은 1993년부터 이후환 작품 20여점, 사갈 관화 등 3천여점을 미술관측에 기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조선시대와 고한인 영암군에도 미술품과 자료를 전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서예, 입을까 볼까?

### '이목회' 회원전 24~28일까지 무등갤러리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예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목회' 회원들은 24~28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제14회 회원전'을 연다. 이목회는 서예가 담긴 전영목 씨로부터 글씨를 배운 제자들의 모

임. 이번 전시회에는 박익정, 광영주, 김종렬, 김동현, 서현희 등 회원 23명이 참가해 다양한 글씨체를 현대적으로 조형화 한 26점을 선보인다. 트로트 가사를 쓴 작품 등 쉽고 대중적인 작품들도 출품된다. 문의 062-236-24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삼순 작 '몽쳐야 신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에메1544-0600

1관 스위니 토드 (18세)	최고등급
2관 무방비도시 (15세)	
3관 미스트 (15세)	
4관 p.s.아일랜드 (전제)/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5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어린왕자 (12세)	
8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9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광주점 무료점권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스위니 토드 (18세)	
2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4관 무방비도시 (15세)	
5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워너-옥외 주차장 300대\*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광주시립 영화시영 • 예매: www.joyobo.com / 1588-7941

###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꿀벌대소동(전제)/어린왕자(12세)	
2관 어린왕자(12세)/황금나침반(전제)	
3관 마법에 걸린 사랑(전제)/무방비도시(15세)	
4관 무방비 도시 (15세)	
5관 스위니 토드 (18세)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8관 미스트 (15세)	
9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10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전제)	

\* 호남 최대 주차장 \* 예매실야 상영합니다 1588-7941  
\* 상영시간표 변경 \* (1시간 or 2시간 or 3시간)

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a.co.kr / 1544-0070

###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무방비도시 (15세)	
2관 어린왕자 (12세)/우리생애최고의순간 (전제)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세)	
4관 미스트 (15세)	
5관 꿀벌대소동 (전제)/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6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7관 스위니 토드 (18세)	

\*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 씨너스북자 사무시(모바일·캐시)

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 1588-9101

###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미스트 (15세)	
2관 어린왕자 (12세)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스위니 토드 (18세)	
5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전제)	
6관 에어리언vs프레데터2 (15세)	
7관 꿀벌대소동 (전제)/색즉시공2 (18세)	
8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내셔널트러스트 (15세)	
9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명품스 생활만을 위한 전용구비 마련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편의애의 가능 \*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무방비도시 (15세)	
2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 (15세)	
3관 스위니 토드 (18세)	
4관 뜨거운것이 좋아 (15세)	
5관 어린왕자 (12세)	
6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색즉시공2 (18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스위니 토드

미스트

무방비도시

어린왕자

뜨거운것이 좋아